

탄허스님(1913~1983) 열반 20주기를 맞아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대전 자광사(주지 청아)는 5월 24일 70명 규모의 탄허 대중사 조사전과 유물전시관을 개관했다.

이번에 문을 연 대전 자광사 탄허대중사 조사전에는 유물전시관과 시민선방이 들어선다.

탄허스님 열반 20주기...선양사업등 다채

유물전시관 개관·추모 세미나

나침반·108염주·훈장·저서등 1천점 전시

일반인 참선지도 위한 시민선방 열어

유물전시관에는 탄허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나침반, 108염주, 낙관, 주민등록증, 훈장 등 유품과 77권의 저서 등 총 1천여점이 전시된다. 또 시민선방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문의 042 822-9219.

또 24일 동방문화대학원과 화엄사상연구회는 서울 보명선원에서 '탄허대중사 열반 20주기 추모 세미나'를 열었으며,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는 탄허스님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보명선원장 각성 스님은 세미나에서 "큰스님은 화엄사상에 입각한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다"며 "큰스님의 뜻에 따라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고 발표했다.

탄허문도회와 탄허문화재단도 열반 20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9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탄허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 출판기념회, 서예전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7권(원고지 20여만장)의 방대한 한문 원전을 현토·역해하여 동양사상과 대승불교의 이해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탄허스님은 1913년 전북 김제에서 출생했다. 14~15세에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유학의 전 과정과 노장 철학을 공부한 스님은 34(22)세인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선사 문하에 출가했다. 53년 월정사 조실, 55년 강원도대종무원장을 역임했다. 66년 동국대 대



탄허스님 열반 20주기 추모법회가 5월 24일 대전 자광사 탄허대중사 조사전에서 열렸다.

학선원장, 67년 초대 중앙역경원연수원장, 동국역경원증의위원, 72년 화엄학연구소장, 75년 동국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불교·유교·도교 사상과 참선으로 뛰어난 뛰어난 예지로 이 시대 민중의 진로를 제시하고자 노력

한 위대한 선지사이요, 대중사였던 탄허스님은 미리 예언했던 입적날인 83년 6월 5일 '일체무언(一切無言)'이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월정사 방산골에서 원적으로 들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전면해체 보수착수

영화 '보리울의 여름'의 촬영장소로 더 유명해진 김제 귀신사의 대적광전(사진 보물 826호)이 이달부터 전면 해체보수에 들어갔다.

17세기 대표적 불전 가운데 하나인 귀신사 대적광전은 외부에 노출된 부재와

일부 기둥의 부식이 심하고, 건물 뒷면의 벽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붕괴 위험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이 국비 15억 9천만원을 들여 직접 보수한다. 공사 기간은 2005년 12월까지이다.

귀신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의 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나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단층 맞배집(옆에서 보았을 때 지붕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대적광전)은 17세기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99년과 92년, 83년에도 일부 부식된 기둥을 바꾸고 지붕을 보수한 적은 있지만 전면 해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형진 기자

광주 민주화운동때 산화

지광 김동수열사 추모제

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던 시민들과 함께 장엄하게 산화해간 대불려 전남지방장 김동수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선대 총학생회는 5월 27일 조선대 김동수열사추모비 앞에서 5.18민중항쟁 제 23주년 지광 김동수열사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삼귀의, 반야심경, 열사 약력소개, 인사말, 추모사, 유족 인사말, 추모시, 추모비 답답이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기자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 운영

우리는 선우, 위기가정 청소년 임시보호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세)가 최근 서울 목동에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재동산은 부모의 불화 및 장기부양, 이혼, 가정 폭력, 가난 등 가장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시 보호처, 위기 가정의 부모나 기타 보호자로부터 양육권을 임시 위탁받아 운영된다. 선재동산은 입소하는 청소년들에게 대가족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론, 가족 관계의 개선도

지원한다.

선재동산은 또 가정폭력과 부모와의 법률적 불협화음 등에 대비해 의료 및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문의와 자문 변호사 1인을 각각 위촉했으며, 24시간 함께 생활할 상주 위탁모를 채용했다.

시설은 건평 34평 규모의 다세대 건물로, 국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됐다. 문의 02 2278-8672 김철우 기자

순천시청 공무원불자회

창립2돌 조직정비나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불자회(회장 방우원, 이하 불자회)가 창립 2돌을 맞아 재도약에 나선다.

불자회는 10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창립 기념법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정비, 법회와 경전공부의 정제화, 회비 납부체계 마련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불자회는 지난해 6월 회원 35명으로 창립한 이래, 매월 순천 지역사회연합회

산하 사찰을 순회하며 법회를 봉행하는 등 활발한 실행활동을 벌여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임정스님 열반 16주기

봉은사, 추모법회 봉행

봉은사주지 원혜와 영암스님 문도회(회장 대운)는 6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영암당 임성대중사 열반 16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한다. 추모법회는 삼귀의, 행장 소개, 오현스님 법어, 주지스님 인사말, 문도대표 인사, 헌다 헌화, 추모순으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언제라도 찾는 열린도량 됐으면”

안성 백마사 장남숙 신도회장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일죽 IC에서 경기도 안성 방향으로 15분가량 가다 보면 야트막한 산을 병풍 삼아 황토법당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대중종 수행도량 백마사(주지 법성)다.

아직 일주문도 세우지 않은 절에 발을 들여놓자 황토법당 왼쪽으로 깎다 만 산의 경사지 속살이 보이고 포크레인 한 대가 방문객을 맞는다. 경사지를 다진 곳엔 법당과 시민선방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눈치 빠른 사람이야 이쯤 되면 알아차리겠지만 백마사는 건립 불사가 한창인 절이다.

실 백마사가 들어서 있는 곳은 장 회장네 땅이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땅을 그냥 썩힐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법을 알리는 일에 써야겠다”는 장 회장의 결심과 “정말 수행에 뜻을 불자들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도량 하나 만들고 싶다”는 법성 스님의 서원이, 두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의기투합’ 했기 때문이다.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다 보니 어려서부터 ‘부처님’ 하면 조상 같은 느낌이 들었어. 부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조상과 집안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죠.”

“부처님 정법 알리는 일에 써야겠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3만평 시주



주지 법성 스님이 신도회장 장남숙 이사(사진 오른쪽 첫번째) 등 신도들과 절일임을 의논하고 있다.

이 절 주지 법성 스님은 손수 포크레인을 다루는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예불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신도들 말에 의하면 소탈하고 법문도 재미있게 잘 한다고 한다. 대전이나 멀리 부산, 전주, 대구에서 찾는 신도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성 스님이 3년 전 이곳에 온 것은 신도회장으로 있는 장남숙(69) 이사 때문이다. 사

불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58평 규모의 법당이 들어서고 찾는 신도 수도 20여 명에서 2백5십여 명으로 늘 정도로 제법 사격(寺格)을 갖췄다. 장 회장이 “열성적이면서도 절일 하나하나까지 신도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스님 덕분”이라고 하자 법성 스님은 “오면 같이 삼짱하고 풀 한 포기라도 뽑고 가는 장 회장이 같은 신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을 미룬다.

안성=권형진 기자



추천의 말

법성스님 백마사 주지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장남숙 거사는 옆에서 봐도 부처님 법에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불자입니다. 환갑 나이에 불교 공부하기 위해 2년 과정의 불교대학

“환갑에 불교대학 입학한 신심”

을 마쳤고, 포교에 큰 뜻을 두고 3만여 평의 땅을 선뜻 시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 하나 내지 않습니다. 불사한지 3년 만에 법당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다 절일을 내 일 같이 여기는 장 거사 같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 한 권이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www.chungabook.co.kr
전화 337-3485(대) FAX 336-2381 **정자출판사**

푹내기 수도승의 기억

“나의 수계식은 이튿날 오전 내 시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당신의 방에서 잠밖거리는 촛불을 곁에 둔 채 방석에 앉아 계신 스승님을 찾아보았다. 스승님 곁에 자리잡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경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스승님께서는 낡은 갈색 승복의 해진 곳을 꼼꼼하게 깎고 계셨다. 만 사제(師弟)와 나는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천히 바느질을 하고 계신 스승님의 모습은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 있는 보살을 보는 듯했다...”

내 스승의 옷자락

탁한 지음 | 진현중 옮김 | 김담 그림 | 값 8,500원

어느 곳에서든 자유로울 수 있다면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그리고 자유로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승이며 평화 운동가인 탁한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다. 감옥 밖에 있어도 구속된 존재일 수가 있고 감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어디에 있든 자유로우라

탁한 지음 | 류시화 옮김 | 값 9,000원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주시고, 우리 친구를 걱정해주시듯이 우리 곁을 걱정해주시고, 이어서 진정한 사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현 옮김 | 값 8,500원